



4 Interview

신년특집 이연택 총동창회장 인터뷰
과거 3대 사학이라 불리던 우리대학의 위상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연택 총동창회장이 발벗고 나섰다.

동대신문

금주일언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을 자서 너희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 받는 이에게 잠이 웬말인가.

숫다니파타 소품 331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86호 2010년 (불기 2554년) 1월 1일 금요일



疏通, 和合 그리고 希望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기축(己丑)년이 저물고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다. 백호의 용맹정진 정신을 본받아 새로운 한 해를 동국 발전의 기회로 만들자는 마음으로, 재단이사장 정련스님, 오영교 총장, 정각원장 법타스님과 재학생들이 동국 발전의 한 해를 기원(祈願)하는 타종을 했다.

사진 = 고유석(사학4)

첫 출발의 우리 指南이여

- 경인년 새해를 맞으며

홍신선

눈 내리는 1월의 텅 빈 교정

파라슈트를 멘 낙하산병들처럼

수수천만 앓던 얼굴의 눈송이들

지상에 착지하며 무릎 꿇거나 허리 꺾어 주저앉는다.

결터앉은 옥상 위 깃대 위에서나

마른 풀 속에서도

부산한 고요의 일만 배(拜)를 한다.

일백 몇 년 동안

경배하며 그렇게 우리 받들어 온 것은

짚신짜 귀 열고 마음 펴서 강의 듣고 푹푹 눌러쓰며

필기한 것은

저 술한 담론과 담론들.

담론과 담론들을 500만 화소의 망점들로 꾸민

저 너와 나의 액정화면 속

올해 더욱 등두렷한 동국대학교,

이 시대의 GPS여

새 출발하는 우리 마음 속 指南이여

홍신선 시인 (국어국문 70줄)은 1944년 경기도 화성 출생으로, 1965 (시문학) 추천으로 등단했으며 우리대학 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대표작으로는 시집 '서벽당집', '겨울섬', 등이 있다.

그림 = 백선아 기자

금주의 동대신문

2면 : 특집

- 재단이사장 신년범어
- 총장 신년사

3면 : 대학보도

- 국가사업수주 600억원 돌파
- 2009 동국인의 밤 성료

4면 : 특집

- 이연택 총동창회장 인터뷰

5면 : 사진특집

- 사진으로 보는 2009년

6면, 7면 : 기획 시리즈

- 청화대학, 파리4대학 편

8면, 9면 : 특집

- 동대문학상 수상작

10면 : 특집

- 동대학술상 수상작

12면 : 문화

- 2010년을 뛰는 동국인

국고지원사업 수주액 600억 돌파

기부금도 사상 첫 200억 원 달성 눈앞에

우리대학이 지난 해 각종 국고지원사업에서 수주한 금액이 사상 최초로 600억 원을 넘어섰고 기부금도 사상 최고인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우리대학은 각종 국고지원사업 선정으로 받은 수주 금액이 약 644억 원으로 2008년보다 약 240억 원 증가했다. 우리대학이 수주한 사업 중,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수주액이 180억 원으로 건학 이래 외부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사업으로 우리대학은 CT와 IT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사업을 육성(育成)하고 '창의산업 벨트 프로젝트'와 지역혁신 클러스터(중부도 Culture Valley)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생명공학과 박정국 교수팀이 교과부가 추진하는 융합파이오니아사업에 선정돼 6년간 55억 원을 지원받고, 물리학과 강태원 교수도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사업에서 53억 원을 지원받는 등 우리대학의 연구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원사업'과 '창업보육센터 신규 건립지원사업' 선정으로 총 51억 원을 지원받아, 앞으로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의 BT산업육성 역량이 늘어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동문과 불자들의 기부도 잇따랐다. 2008년 대비 기부 건수와 기부자 수가 각각 약 67%, 43% 증가해, 기부금이 약 2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에는 경기

도 하남시에 위치한 성불사 주지학 명스님이 교육환경 개선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또 이정재, 소유진 등 우리대학 연극학과 출신의 연예인이 연극 '햄릿'의 수익금 3천만 원을 내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외협력단이 추진한 '학과별 장학기금 1억 원 조성 캠페인'에 화학과, 영어영문학과, 국어교육과가 참여해 총 1억 2천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造成)됐다. 화학과 동문회는 후배사랑 장학금 1억 원을 약정하고 4천만 원을 우선 기부했으며 영어영문학과 총동문회와 국어교육과 교수 5명이 후배사랑 장학금으로 각각 1천만 원 씩을 기부해 학과별 장학기금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하나 된 마음으로 한판! 국제교류팀은 구랍(舊臘) 21일 상록원에서 International Evening Day 행사를 개최하고 교환학생들과 이들의 유학생할에 도움을 주고 있는 동국 벗(BUD) 학생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팔씨름 대회를 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사진제공 = 국제교류팀)

양영진 교수 사회학회 회장에



양영진(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18일 고려대에서 열린 2009 국제 사회학 대회에서 제 52대 한국사회학회 회장에 취임(就任)했다. 양영진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歷任)했다.

임식 교수, 서울시 연구상 수상



임식(체육교육과) 교수가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서 체육유공자 연구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임식 교수는 경기단체와 연구 부문 등에 걸쳐 서울시 체육발전 기여한 사업에게 수여되는 유공표창 중 연구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동국인의 밤, 1천여동문 모인 가운데 성료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에 송석구, 이인정, 김현수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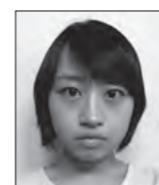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2009 동국인의 밤 행사가 1천여 명의 동문(同門)이 참석(參席)한 가운데 지난 23일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렸다. 올해 38번째로 열린 동국인의 밤 행사는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

상, 장학기금 전달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2009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은 송석구(철학62졸)동문, 이인정(상학72졸)동문, 김현수(한외90졸) 동문이 수상했다. 송석구 동문은 현재 가천의과대학 총장으로 사회 발

전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사회·교육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이인정 동문은 한국 산악회 발전에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체육부문에서 수상했다. 또 김현수 동문은 무료 의료 봉사하는 등 모교의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의료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올해로 8회를 맞는 동국 청우상의 시상식도 함께 열려 삼창기업 회장 이두철 동문(사회과학대학원외졸)이 수상했다. 한편 이번 동국인의 밤 행사에서는 KCC 명예회장 정상영(61법학졸)동문이 16억 원을 쾌척(快擲)하고, 이영하(80무역졸)동문이 2억 원을 기부하는 등 동문들의 기부가 잇따랐다.

〈진〉 gina@dongguk.edu

나혜민, 전진오 대신대학문학상 수상



나혜민 (문예창작과 4)



전진오 (문예창작과 2)

을 통해 자신들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作品) '소년 소녀 차차차'로 시나리오 분야 수상자에 선정됐다. 희곡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전진오 군은 사회적 빈곤에 처한 한 청년의 독특한 사고와 행위를 다룬 작품 '달로 가요'로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나혜민(문창4)양과 전진오(문창2)군이 제8회 대신대학문학상 공모에서 각각 시나리오와 희곡(戯曲)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 8회 대신대학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5일 열린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賞金)과 15일간의 해외문학기행 기회가 주어진다.

혜화문 에스컬레이터 완공

학생들의 숙원(宿願)이었던 혜화문 에스컬레이터가 지난 8일 완공(完工)돼, 15일부터 가동(稼動)에 들어갔다. 혜화문 에스컬레이터는 당초 11월 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근에 놓여있던 동대입구역의 환기구 이설(移設) 문제로 완공이 지연됐다. 사업개발 2팀의 정경섭 팀장은 "동대입구역의 환기구를 이설하는

문제인 만큼 서울메트로와 협의(協議)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담당한 중구청 공원녹지과의 김종우 계장은 "현재 에스컬레이터 운영권을 동국대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며 "빠른 시일 내 운영권을 넘겨 에스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동국대 로스쿨 탈락 확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3일 우리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取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敗訴) 판결한 원심(原審)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

위원들이 자신의 소속 대학에 대한 심의에 관여한 것은 제척 규정 위반(違反)이지만, 교수위원들의 소속 대학이 아닌 원고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은 제척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불교청년지도자 장학생 3천배 수행

우리대학의 불교청년지도자 장학생 100여명이 지난 26일 대각전에서 3천배 수행을 실시(實施)했다. 구암스님을 범사로 26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이번 3천배 수행은 불교적 소양(素養)을 갖추고 신행과 포교(布教)를 실천하는 청년 불자를 양성(養

成)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이번 실시된 3천배 수행은 2009년의 실행활동을 되돌아보고 수행의지를 다지는 마음으로 장학회 집행부가 주관되어 실시하게 됐으며 총 100명의 학생 중 약 80명의 학생이 3천배에 참여했다.

동악로에서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주객전도 (主客顛倒)

공과대학이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수상담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21일부터 상담을 시작했다. 필수상담제도란 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전공에 대해 전공교수와 학생이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개별적인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2회씩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에 불응한 학생들은 수강신청 및 성적공시의 제한(制限)을 받게 된다.

공과대 학사운영실의 안재봉 실장은 "필수 상담제도는 진로상담 외에도 공학교육인증과 교과 이수에 대해 상담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防止)하는 효과가 있다"며 필수상담제도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필수상담제도와 관련한 학생들의 반응은 뜸뜨른 분위기다. 건축공학과 A군은 "상담의 질에 비해 페널티가 너무 세다"며 "일방 상담과 다르지 않은

데 굳이 방학때 학교에 나와 상담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吐露)했다. 화공생물공학과 B군은 "단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정도의 상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수강신청이나 성적공시에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강제적"이라고 말했다. 상담을 받(半)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이다.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C군은 "필수 상담제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드문 것 같다"며 "교수님마다 상담의 형식과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같은 복잡한 교과이수과정을 거쳐야 하는 공대의 특성상, 필수상담제도 실시는 좋은 시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상담대상인 학생들한테는 이 제도의 취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학생들이 상담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 정시모집 5.97 대 1로 최종마감

최고 경쟁률은 연극학부로 31.09 대 1, 오는 22일 합격자 발표

2010학년도 정시 모집이 지난 23일 5.97대 1의 경쟁률로 최종 마감됐다. 일반전형은 총 1,924명 모집인원에 11,493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지난해에 비해 약 0.5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이 높은 학과 순위로는 ▲연극학부(실기) 31.09대

1 ▲체육교육과 13.86대 1 ▲가정교육과 13.80대 1 ▲조소전공 13.07대 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시모집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22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합격자 등록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다.

장학기금 모금 화제 ROTC 동문회 성영석 회장



최근 학군단(이하 ROTC) 동문회장인 성영석(경영71졸) 동문이 직접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등 대학발전을 위한 동문 참여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성영석 동문회장은 선임 당시, ROTC 대외평가 결과가 부진한 것을 보고 모교발전을 위해 동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대해 고민한 끝에 'ULTRA 112 장학기금'을 신설했다. 또한 성영석 동문은 자신의 사비로 3,000만원의 장학금을 내놓고 동문들의 기부 참여를 유

도하기도 했다. 그의 노력덕분에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모인 장학기금은 약 5,000여만 원에 이른다. 장학기금은 동문회장이 직접 조성할 뿐 아니라 ROTC 기수별로 일정 분담금을 모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성영석 동문회장은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학생, 동문 모두가 삼위 일체돼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동문들이 대학발전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전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모교 발전 참여 사례가 기폭제가 돼 많은 동문들의 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지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신년 인터뷰 - 모교 발전 위해 발 벗고 나선 이연택 총동창회장

“3대 사학(私學) 명성 되찾는 것 목표”



이연택 총동창회장

약력

- 1961년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8년 대통령 비서실 행정수석 비서관
- 1990년 총무처 장관
- 1992년 노동부 장관
- 2000년 2002 한일월드컵 조직위원회 공동 조직위원장
- 2002년 대한체육회장
- 2009년 **現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기를 보낸 이 회장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을 겸하면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총동창회장직을 맡은 이유는 모교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때문이다.

이연택 회장은 “지난해 학교의 대학평가 순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총동창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지난해 이 회장의 35년 공직 생활에서의 경험과 스포츠 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력과 노하우를 높이 사 만장일치로 그를 총동창회장으로 추대(推戴)했다.

이연택 회장은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총동창회의 목표로 “과거 3대 사학(私學)의 명성을 되찾는 것”이라고 짧지만 단호하게 밝혔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대학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치열한 경쟁시대인 요즘, 잠시라도 정제했다간 곧바로 타 대학에 뒤처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상황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과거 해화, 연희, 보성 전문학교로 구성된 3대 사학 중 한 축을 차지했던 우리대학이지만 현재는 과거의 명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세간의 평에 아쉽고 답답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과거의 명성이 아니라 미래의 명성을 위해 총동창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

다. 이 회장은 인기 중 주요 과제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창회 차원의 지원을 들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크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장학기금 내년에 2.5배 늘릴 것

이 회장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동창회는 바로 고려대학교 동창회(이하 고대)다. 고대의 경우 매년 500명에게 장학금을 기부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대학 총동창회는 4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 회장은 “몇 년 안에 고대 수준으로 장학금을 확충하겠다”며 “그 첫 발로 내년부터 동창회가 지원하는 장학생을 올해 40명에서 100명으로 2.5배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약 6억원에 불과한 동창회 장학금을 앞으로 100억 원까지 확대해나간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추락한 대외평가 중 특히 시급히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교수연구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 20명을 선정해 1인당 3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수 20명에게 연구비 지원할 것

이 회장은 “무엇보다 대외평가 순위를 빠른 시일 내에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교수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대학과 재단, 총동창

회가 힘을 모아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다른 대학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연택 회장은 또 대외평가 순위 개선 이외에도 총동창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고 밝혔다.

우선 총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단과대, 과 등 하위 조직 동창회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

이 문제에 대해 이 회장은 “과거에는 각 동창회들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유기적인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동창회에서는 각 분기마다 총동창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동창회의 발전방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講究)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문-재학생 유대강화 중요

이 회장은 이밖에도 많은 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과 총동창회 차원에서 만남의 장을 자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에 열린 홈커밍데이와 지난 23일 열린 동국인의 밤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홈커밍데이의 경우 이 회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가진 가장 큰 동문행사였다. 이 회장은 수 많은 동문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지만 좀 더 보완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동문들이 지속적으로 학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동문들이 자주 모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학교와 총동창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택 회장은 총동창회의 주요한 역할이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하

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동창회는 자랑스러운 모교의 위상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올해부터 동국포럼을 열어 유명 인사들과 대학발전과 관련된 의제(議題)를 가지고 동문들과 공감, 협력을 얻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다른 대학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른 대학이 시도하지 못한 것들을 시도해야 한다”며 “동국포럼을 통해 대학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해안(慧眼)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인(庚寅)년 새해를 맞이해 이 회장은 재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침체된 대학의 분위기를 되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力說)했다. 또 동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자신감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한편 동문들에게는 “모교평가는 곧 자신에 대한 평가”라며 “사회활동으로 인해 바쁘겠지만,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동문들의 총동창회 활동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주문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의 이와 같은 바람은 잠시 주춤했던 우리대학이 예전처럼 부흥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목표의식을 확실하게 일깨우고 있다. 이 회장의 바람처럼 앞으로 우리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대학과 재단, 교수, 동문, 학생 모두가 힘을 합쳐 현재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3대 사학으로의 복귀(復歸)’라는 목표를 두고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다.

새해를 맞이해 모든 동국인들의 소망대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발전하는 대학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

〈대담 정리 = 정용재 편집장〉

wonder@dongguk.edu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말이 있다.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몸은 낯선 곳에 있지만, 마음만은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인자상정(人之常情)이다.

정든 학교를 떠나 거친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에게 모교가 제 2의 고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문이라 하면 늘 모교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길 바라고 우수한 후배들이 배출(輩出)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동문들의 관심과 애정을 한 데 모아 후배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인 총동창회. 새해를 맞이해 총동창회가 지난 비전과 계획을 듣기 위해 이연택 총동창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8월 총동창회 제25대 회장으로 추대(推戴)된 이연택 회장은 1961년 우리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청와대 행정수석과 총무처 장관,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歷任)했다. 또, 2002한일월드컵조직위 공동위원장,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체육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 우리대학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와 지난 2007년까지 법과대학 석좌교수를 맡는 등 남다른 모교사랑을 실천했다. 그 공로(功勞)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2008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외평가 순위 보고 충격받아

총동창회장으로 약 4개월 정도 임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09년 12월 1일 ~ 2009년 12월 20일

특정목적기금

김향자(일반/기타, 1만원) 김현진(동문, 4만원) 김형욱(경주/직원, 1만원) 김혜중(서울/교수, 10만원) 남일지(경주/직원, 1만원) 노동원(경주/직원, 2만원) 두중영(일반/기타, 100만원) 류장원(동문, 1만원) 모종은(경주병원/직원, 5000원) 무구스님(스님, 5만원) 무명(일반/기타, 200만원) 문진영(경주/교수, 100만원) 박계훈(학부생, 1만원) 박광영(동문, 1만원) 박기원(경주/직원, 1만원) 박봉환(동문, 1만원) 박상환(경주/교수, 3만원) 박상익(경주/직원, 2만원) 박선동(경주/교수, 10만원) 박순홍(경주/교수, 5만원) 박옥석(경주병원/직원, 3만원) 박윤희(서울/교수, 5만원) 박종희(경주/직원, 1만원) 박진희(서울/교수, 5만원) 박철수(동문, 1만원) 배은희(기업/재단, 5만원) 배충남(동문, 10만원) 백박관(경주/직원, 1만원) 백성기(기업/재단, 10만원) 백기홍(불교신도, 5000원) 변지희(불교신도, 5000원) 서남순(경주병원/직원, 1만원) 서미희(경주병원/직원, 1만원) 서병희(불교신도, 6만원) 설향미(포항병원/직원, 1만원) 성재용(경주/직원, 3만원) 손동진(경주/교수, 5만원) 손미준(일반/기타, 5000원) 손재영(서울/직원, 5만원) 송이규(경주/직원, 5만원) 심정원(불교신도, 3000원) 심용섭(동문, 2100만원) 안인숙(경주병원/직원, 3만원) 양귀중(불교신도, 3000원) 양재연(경주병원/직원, 3000원) 오강희(경주/직원, 5만원) 오기운(불교신도, 3000원) 오소민(불교신도, 5만원) 오영(일반/기타, 3000원) 오준철(불교신도, 5만원) 오원욱(경주/교수, 5만원) 원명수(기업/재단, 3000원) 장영이(중앙교육기업/재단, 2000원) 윤경식(일반/기타, 1만원) 윤명순(불교신도, 3000원) 윤진아(경주/직원, 1만원) 윤정하(대학원/불교, 5000원) 윤향원(불교신도, 10만원) 윤현희(불교신도, 1000원) 이경미(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정미(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기병(경주/직원, 2만원) 이나현(경주병원/직원, 5000원) 이만(경주/교수, 1만원) 이명기(불교신도, 10만원) 이명숙(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상준(경주/직원, 1만원) 이수아(일반/기타, 1만원) 이수원(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순호(일반/기타, 5000원) 이순민(일반/기타, 3000원) 이시영(경주/교수, 3만원) 이시형(학부생, 2만원) 이상순(일반/기타, 3000원) 이상희(경주병원/직원, 5000원) 이용수(경주/직원, 2만원) 이원재(경주/직원, 3만원) 이원학(일반/기

타, 2만원) 이경구(대학원/산업기술환경, 3000원) 이재철(일반/기타, 1000원) 이지영(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창규(기업/재단, 20000원) 이철(기업/재단, 1만원) 이태원(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현정(경주/직원, 2만원) 이형경(경주병원/직원, 3만원) 임병수(경주/직원, 2만원) 임성진(경주병원/직원, 5000원) 임재길(경주/교수, 100만원) 임종민(경주/직원, 1만원) 장규태(동문, 10만원) 장미란(경주병원/직원, 1만원) 장익현(경주/교수, 5만원) 정순영(포항병원/직원, 3만원) 정각원(사관, 1588만6000원) 정경윤(경주병원/직원, 3000원) 정금래(일반/기타, 5000원) 정보영(경주병원/교수, 20만원) 정은재(동문, 10만원) 정재용(경주병원/직원, 3000원) 정재우(동문, 10만원) 정준기(경주/교수, 10만원) 정한관(불교신도, 2만원) 정호경(대학원/불교, 1000원) 진혁진(서울/직원, 2만원) 최재현(경주병원/직원, 2만원) 최진식(기업/재단, 20만원) 최호진(서울/직원, 3만원) 하연주(경주병원/직원, 2만원) 하윤실(동문, 1만원) 학명스님(스님, 1억원) 한도연(일반/기타, 5000원) 한소연(일반/기타, 5000원) 함민희(불교신도, 1만원) 행정대학원(대학원/행정, 145만8000원) 하지영(경주병원/직원, 5000원) 허예진(동문, 1000원)

지난 한 해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보내주신 학내외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0년에는 내내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임직원 일동

사회과학연구원 원고 모집

그동안 교직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심사에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사회과학연구'가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2호(2010년 2월 25일 발간)의 원고를 2010년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많은 원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원고모집을 안내하오니 늦지 않게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원고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모집기간 : 2010년 1월 31일까지
- 업적평가 가산점이 등재후보지 평가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과학연구원 2260-3513 또는 ris@dongguk.edu 로 문의바랍니다.

2009년 12월 26일

사회과학연구원장 최응렬

2010 신입생 모집 | 문의처 : 2009. 12. 28(월) ~ 2010. 2. 5(화) | 세상을 바꾸는 힘 동국대학교 | 세상은 바꾸는 힘 동국대학교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09년 12월 1일 ~ 2009년 12월 20일

특정목적기금

김향자(일반/기타, 1만원) 김현진(동문, 4만원) 김형욱(경주/직원, 1만원) 김혜중(서울/교수, 10만원) 남일지(경주/직원, 1만원) 노동원(경주/직원, 2만원) 두중영(일반/기타, 100만원) 류장원(동문, 1만원) 모종은(경주병원/직원, 5000원) 무구스님(스님, 5만원) 무명(일반/기타, 200만원) 문진영(경주/교수, 100만원) 박계훈(학부생, 1만원) 박광영(동문, 1만원) 박기원(경주/직원, 1만원) 박봉환(동문, 1만원) 박상환(경주/교수, 3만원) 박상익(경주/직원, 2만원) 박선동(경주/교수, 10만원) 박순홍(경주/교수, 5만원) 박옥석(경주병원/직원, 3만원) 박윤희(서울/교수, 5만원) 박종희(경주/직원, 1만원) 박진희(서울/교수, 5만원) 박철수(동문, 1만원) 배은희(기업/재단, 5만원) 배충남(동문, 10만원) 백박관(경주/직원, 1만원) 백성기(기업/재단, 10만원) 백기홍(불교신도, 5000원) 변지희(불교신도, 5000원) 서남순(경주병원/직원, 1만원) 서미희(경주병원/직원, 1만원) 서병희(불교신도, 6만원) 설향미(포항병원/직원, 1만원) 성재용(경주/직원, 3만원) 손동진(경주/교수, 5만원) 손미준(일반/기타, 5000원) 손재영(서울/직원, 5만원) 송이규(경주/직원, 5만원) 심정원(불교신도, 3000원) 심용섭(동문, 2100만원) 안인숙(경주병원/직원, 3만원) 양귀중(불교신도, 3000원) 양재연(경주병원/직원, 3000원) 오강희(경주/직원, 5만원) 오기운(불교신도, 3000원) 오소민(불교신도, 5만원) 오영(일반/기타, 3000원) 오준철(불교신도, 5만원) 오원욱(경주/교수, 5만원) 원명수(기업/재단, 3000원) 장영이(중앙교육기업/재단, 2000원) 윤경식(일반/기타, 1만원) 윤명순(불교신도, 3000원) 윤진아(경주/직원, 1만원) 윤정하(대학원/불교, 5000원) 윤향원(불교신도, 10만원) 윤현희(불교신도, 1000원) 이경미(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정미(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기병(경주/직원, 2만원) 이나현(경주병원/직원, 5000원) 이만(경주/교수, 1만원) 이명기(불교신도, 10만원) 이명숙(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상준(경주/직원, 1만원) 이수아(일반/기타, 1만원) 이수원(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순호(일반/기타, 5000원) 이순민(일반/기타, 3000원) 이시영(경주/교수, 3만원) 이시형(학부생, 2만원) 이상순(일반/기타, 3000원) 이상희(경주병원/직원, 5000원) 이용수(경주/직원, 2만원) 이원재(경주/직원, 3만원) 이원학(일반/기

타, 2만원) 이경구(대학원/산업기술환경, 3000원) 이재철(일반/기타, 1000원) 이지영(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창규(기업/재단, 20000원) 이철(기업/재단, 1만원) 이태원(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현정(경주/직원, 2만원) 이형경(경주병원/직원, 3만원) 임병수(경주/직원, 2만원) 임성진(경주병원/직원, 5000원) 임재길(경주/교수, 100만원) 임종민(경주/직원, 1만원) 장규태(동문, 10만원) 장미란(경주병원/직원, 1만원) 장익현(경주/교수, 5만원) 정순영(포항병원/직원, 3만원) 정각원(사관, 1588만6000원) 정경윤(경주병원/직원, 3000원) 정금래(일반/기타, 5000원) 정보영(경주병원/교수, 20만원) 정은재(동문, 10만원) 정재용(경주병원/직원, 3000원) 정재우(동문, 10만원) 정준기(경주/교수, 10만원) 정한관(불교신도, 2만원) 정호경(대학원/불교, 1000원) 진혁진(서울/직원, 2만원) 최재현(경주병원/직원, 2만원) 최진식(기업/재단, 20만원) 최호진(서울/직원, 3만원) 하연주(경주병원/직원, 2만원) 하윤실(동문, 1만원) 학명스님(스님, 1억원) 한도연(일반/기타, 5000원) 한소연(일반/기타, 5000원) 함민희(불교신도, 1만원) 행정대학원(대학원/행정, 145만8000원) 하지영(경주병원/직원, 5000원) 허예진(동문, 1000원)

지난 한 해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보내주신 학내외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0년에는 내내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임직원 일동

사진으로 본 2009년 동국대학교 !

도서관·정보문화관 증축, 에스컬레이터 설치 새롭게 변화하는 캠퍼스 국고지원사업 수주 600억원 돌파, 학교발전기금 모금 200억원 등 성과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동안 우리대학에는 이수가 많았다.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착공을 시작으로 일산 의생명과학 캠퍼스 착공과 학내 건물들의 증축 공사가 이어졌다. 국가품질경영대상 표창과 국고지원 사업 600억대 돌파라는 성과도 있었다. 2009년 한 해를 사진으로 정리해 보았다.
사진 정리 =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①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착공식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1단계 사업 착공식이 지난 8월 17일 고양시 일산구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에서 열렸다. 착공식은 강의동과 산학협력관을 건립하기 위한 1단계 사업에 따른 것으로 올해 8월까지 지하 1층, 지상 8층, 1만 5026㎡ 규모로 추진 중이다.

② 산학협력관, 기숙사 착공

서울캠퍼스의 숙원사업이던 기숙사와 산학협력관이 착공됐다. 7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국고지원사업 수주, 600억대 돌파

우리대학이 정부의 각종 국고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올해 신규과제 수주 금액이 지난해 보다 240여억 원이 증가한 64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태원 교수의 양자기능반도체 연구센터를 비롯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선정, 박정국 교수팀의 미래 유망 융합기술 사업 선정 등이 잇따르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지원금이 600억 원 돌파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는 2008년 300억 원 돌파에 이어 다시 1년만에 2배에 가까운 성과를 올린 것으로 학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④ 국가품질경영대상 교육부 장관 표창

우리대학이 지난 11월 25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09년 국가품질경영대상'에서 품질경영대상 교육부 장관에 선정돼, 성균관대와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11월 24일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제 17회 고객만족경영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대학이 추진하는 고객만족 경영이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⑤ LA캠퍼스 시대 개막

우리대학이 지난 3월 5일 한의학 석사과정 대학원인 LA의 동국 로얄대학교 개교 30주년을 맞아 '글로벌 비전선포식'을 열고 현지 캠퍼스로서 역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다. LA캠퍼스는 2009년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파견해 어학연수 캠프를 갖는 등 우리대학이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⑥ 예일대의 사실 은폐 증거 발견

우리대학이 2007년 발생했던 학위위조 사건과 관련해 학위검증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일대는 소송이 제기된 직후 사소한 실수라며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우리대학은 소송진행 과정에서 예일대가 사실을 은폐한 정황증거를 찾아내 소장 변경했다. 미국 법원은 예일대의 소송기각 요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고, 오는 1월 중순부터 양측이 진행하는 증인 심문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⑦ 학교발전기금 200억 모금 눈앞에

우리대학이 2008년 기부금 모금 100억 원 돌파에 이어 2009년에는 200억 원 모금을 앞두고 있다. 2009년 기부금 모금에서는 김주필 명예교수가 평생에 걸쳐 건립한 200억 원 상당의 거미박물관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경남에 거주하는 불교신자 최연이 할머니가 전 재산인 아파트를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동문과 학과 단위의 모금도 활발해져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하는 동문들의 수가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경찰행정학과, 영문과, 국어교육과 등 교수들의 학과장학기금 모금도 활발해졌다.

⑧ 다시 태어나는 캠퍼스

캠퍼스가 달라지고 있다. 900석의 열람실을 추가로 마련하는 중앙도서관의 증축공사가 마무리돼 이용에 들어갔고, 정보문화관도 270평 규모의 1개층 증축이 오는 2월말이면 완공돼 연구공간 부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만해관, 사회과학관,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옥상에 정원이 마련돼 실 곳이 부족했던 캠퍼스 환경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11월에는 혜화문 입구에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완공됐다.



⑨ 잇따른 동문들의 눈부신 활약 돋보여

2009년 새해 벽두 우리대학 출신 동문과 재학생 9명이 언론사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쾌거를 알렸다. 또 5월에는 박영석 동문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해 정상정복에 성공하면서 동국인의 긍지를 널리 알렸다. 조소수 동문과 홍영표 동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도 눈길을 끌었다. 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2명의 동국인이 당선되면서 동문 국회의원의 수도 기존의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⑩ 총학생회, 총장 부속실 점거농성

총학생회 소속 학생 80여명이 지난 5월 28일 입학정보관리시스템철거를 요구하며 대학본관에 진입해 총장 부속실인 본관 4층 경영관리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은 입학정보 관리시스템에 반대하며 본관에 진입해 '일방적인 학사행정을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이에 앞서 총학생회장과 단과대학 학생회 학생들도 본관 앞에서 학제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였다.



제 24 회 동대문학상 당선작

본지(本紙)가 주관하는 제 47회 동대학술상과 제 24회 동대문학상의 시상식이 지난 3일 본관 학사 부총장실에서 열렸다. 이에 이번 학술면에서는 제 47회 동대학술상 및 제 24회 동대문학상에서 당선된 작품을 소개한다. 또 지면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은 동대신문 홈페이지(www.dgupres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소설 부문 장원

재채기 연습

전원이 꺼진 19인치 텔레비전 안에 담겨 있는 강의실 풍경을 본다. 맨 첫째 줄의 가장 왼쪽 책상 위에 놓여있는 텔레비전은 늘 검은 얼굴을 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 나는 고개만 들면 내 옆에 앉은 여자, 앞에 앉은 커플의 표정을 볼록한 화면으로 훑쳐볼 수 있다. 어떻게 저 조그만 네모 속에 이 커다란 강의실 모습이 들어갈 수 있을까. 강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의 볼록한 화면 속에 조그맣게 축소되어 들어가 있다. 모두들 앞에 있는 강사를 보면서 열심히 입을 움직여 큰 소리로 독일어를 따라하고 있다. 구튼 탁! 안녕하세요. 아우프 비더젠! 안녕히 가세요. 비 하이젠 지? 당신 이름은 무엇 입니까? 모두 들어보지도 못 했던 말이다. 나는 텔레비전 화면 속의 내 얼굴과 마주보면서,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입을 떼어 울렁울렁 거려본다. 구튼 탁! 아우프 비더젠! 비 하이젠 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맞춰 입을 움직인다. 네 명의 목소리는 서로 겹쳐지고 하나가 되어 내 목소리를 대신한다.

“제가 한국에서 독문학을 전공하고, 독일로 건너가서 10년 동안 사회학을 공부했어요. 귀국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한국에 와서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은행에 갔었거든요. 카드를 만들려면 신상명세서에 이것저것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직업을 체크하는데, 제 직업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회학자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사회학자인데 어디에 체크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기타’에 체크를 하세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영화감독이든, 소설가든, 시인이든 다 백수로 친대요. 아, 사회가 예술가들을 ‘기타’로 밖에 안 쳐주는구나. 남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면 떨어지거나 묶어버리는구나…….”

자신의 이야기에 흥이 난 강사와 함께 사람들은 웃는다. 그 웃음소리에 내 웃음소리가 겹치지 못하는 나는 생각해보는 내 눈에는 사회학자가 아니라, 30대 중반의 노총각 학원 강사일 뿐인데. 저 얘기에 웃지 않는 나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타’인 건가?

“미경 씨, 미경 씨가 유르겐 클라우케를 하고, 재희 씨? 재희 씨가 유미 박을 맡아서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해 보세요.”

강사는 내 눈을 보면서 ‘재희 씨’라고 부른다. 재희 씨는 첫 시간에 얼굴을 보이고 나서부터는 나오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강사가 내 이름을 ‘재희’로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지만, 굳이 ‘제 이름은 은율이예요.’라고 고쳐주고 싶지 않다. 어차피, 두 달만 보고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재희로 알든 은율로 알든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내가 맡은 부분의 독일어를 단어 하나 하나에 힘을 주어 발음해본다.

“이히 하이제 유미 박. 내 이름은 유미 박입니다. 보히어 코멘 지, 히어 클라우케? 클

라우케 씨는 어디로부터 오셨나요? 코멘 지 아우스 도이칠란드? 독일에서 오셨나요?”

입 모양과 혀의 움직임이 낯설다. 강사의 발음을 따라 가래를 끓는 소리를 흉내내보기도 하고, 혀와 입술을 일부러 과장되게 움직여보기도 한다. 나는 이 낯선 느낌이 반갑다. 낯선 움직임에서 터져 나오는 내 목소리를 들으니 마치 내 것이 아닌 듯 새롭다.

“구튼 탁! 비 하이젠 지?”

마주보고 앉은 엄마에게 슬쩍 말을 던져 봤다. 엄마는 말없이 나를 계속 쳐다보지만 했다.

“엄마 독일 작가 좋아했잖아. 결혼하기 전에 독일어 가고 싶었다면서, 독일어도 배우고 싶었잖아?”

엄마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하던 일을 계속 했다.

“그럼, 외국어를 배워보는 게 어때?”

“외국어는 무슨 놈의 외국어. 엄마가 그런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라고. 외국인한테 다시 시집가라고?”

외국어를 배우면 엄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하는 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수도 있을 텐데.

“아님 노래교실이라도 나가보든가.”

엄마가 입 속에 핏뚱 숨겨두는 말들을 털어내는 시간은 많지 않다. 함께 마주보고 밥 먹을 때, 나물을 다듬을 때, 그리고 고구마순 껍질이라도 갈 때다. 엄마는 오늘날도 시장에 가서 고구마순 세 단을 사왔다.

“세 단이면 한 단에 한 시간씩, 까는 데 시간 많이 걸리고, 쓰레기 많이 나오고, 팔도 아프고, 손가락도 더러워지는데 뭐 하러 사왔어.”

나는 귀찮다는 듯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



다. 하지만 알고 있다. 엄마는 나물을 다듬거나 고구마순을 까면서 자신의 외로움과 지루함을 달랜다는 것을. 나물과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그 속에 엄마의 생각을 집어 넣고 정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내 속을 엄마는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도.

“보라색 줄기가 힘차게 뻗어있는데, 꼭 나더러 자기 좀 까달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어디 있지.”

껍질을 벗기고 고구마 순이 입고 있던 보라색 옷이 수북이 쌓이면서 엄마의 말들도 함께 쌓였다.

“네 아빠는 그뻘한테도 똑같은가.”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언제나 아빠 얘기뿐이었다. 불만과 원망이 섞인 억양과 호흡. 나는 엄마의 말 한 마디가 끝날 때

마다 제때에 주입새만 던져주면 되었다. 정말? 맞아. 어떻게 그래? 엄마는 왜 그런 야빠랑 결혼했어? 엄마의 말과 내 맞장구치는 말들은 서로 뉘러기를 하는 듯했다. 그런데 엄마의 말이 더 무겁다. ...

소설의 전문 및 가작은 동대신문 홈페이지(www.dgupres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유경 (문예창작 4학년)

희곡·시나리오 부문 장원

‘작별’

등장인물

김양수(여, 삼십대 후반)
신성록 (남, 삼십대 후반)

무대

겨울, 병실 안.
양쪽 가장자리에 침대가 놓여 있다. 침대와 맞닿아있는 왼쪽 벽 상 위에는 밖이 보이는 창문이 나 있으며, 오른쪽 상 위에는 텔레비전, 하단에는 작은 냉장고가 있다.
냉장고 위에 올려져있는 주전자와 꽃이 든 꽃병, 음료수 책들이 보인다.

텅 빈 병실 안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텔레비전을 등지고 열려져 있는 창가에 선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성록의 모습이 보인다. 환자복 차림이다. 중간중간 기침을 콜록대면서도 들고 있는 담배를 참 맛있게도 피운다. 곧 병실 문이 열리고 양수가 들어온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성록의 모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양수.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본 성록 또한 들고 있던 담배를 미처 끄지도 못한 채 놀란 얼굴로 양수를 바라본다.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그러다 성록의 기침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격해지자 양수가 놀라서 다가간다. 담배를 끄고 침대에 엎드리는 성록. 양수, 성록을 제대로 부축하지도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옆에 있던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건넨다. 성록, 물을 마시고 조금씩 진정이 된다.

양수 : (창문쪽으로 가며, 조심스레) 단을 까?
성록 : (고개를 끄는)

양수 : 바람이 차.
성록 : 냄새 빠러구.
양수 :
성록 : 담배 냄새말야.
양수 : 관찮은데.
성록 : 내가 혼나. (조금 웃고) 간호사들 코가 개코거든.
양수, 성록에게 다가가 이불이라도 덮어주려고 하다가 그만둔다. 어정쩡하게 서 있는 양수. 성록이 옆에 있는 의자를 꺼내 주려 하자 스스로 꺼내어 자리에 앉는다. 어색한 침묵을 깨려는 듯 성록이 입을 연다.

성록 : (미안한듯) 오랜만이다.
양수 : 안 놀랐나보네. 많이 놀랄 줄 알았는데.
성록 : (양수에게) 더 놀랐겠는데.
양수 : (미소)
성록 : (보다가) 밤중에 울 줄은 몰라서.
양수 : (나즈막히) 내가 울 줄 알았어?
성록 : 응. (하다가 웃고) 사실은 울까, 안 울까 그랬다. 니가 그랬잖잖나. 죽을 때까지 보지 말자고. (농담처럼)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럼 한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랬지.
양수 : 실은 얼마 전에 한번 왔었어. 얘기 못 들었어?
성록 : 그런 말 없었는데.
양수 : 자고 있더라고. 돌이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좀했지.
성록 : 깨우지 그랬어.
양수 : 약 먹고 잔다는 사람을 어떻게 깨워. 것도 잠 깨우는 걸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들.

성록 : 약이 좀 독해. 안 자려고 해도 저절로 잠들지. 약 먹고 든 잠은 깰 때마다 기본이 엉망이야.
양수 : 약이 잘 안 받는다면서. 걱정이 많더라.
성록 : 그렇지 뭐. (웃으며) 좋은 몸 더 좋아지라고 먹는 약도 아닌데.
양수 :
성록 : 여전하네.
양수 : 칭찬인가?
성록 :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을 이겨냈는데 더한 칭찬이 어딨어.
양수 : 아침부터 이웃 저웃 몸에 걸치고 패션쇼를 했어.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성록 : 불공평하다. 난 이렇게 불품 없는 낮짜기로 누워있는데 말야.
양수 : 오는 길에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했는데. 냄새 나?
성록 : 아니.
양수 : 추운날 고생한 보람이 있네. 파마 냄새 없애려고 잠실을 세바퀴나 돌았어. 것도 이런 구두를 신고.
성록 : 뭐하러.
양수 : 냄새에 예민하잖니.
성록 : 예민하긴.
양수 : 저녁밥상 앞에서 내가 밖에서 먹은 점심메뉴까지 알아맞추던 사람인데. 덕분에 나 잠은 세시간 자도 목욕은 아침저녁으로 했었다.
성록 : 그래 피곤한 스타일이긴 했지.
양수 : 섬세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좋은 징조야. 한가지 감각이 너무 발달하면 나머지는 평균도 못 미치기 일쑤다.
성록 : 입학할 때 신체평가 만점 받은 사람이야. 나.
양수 : 더 큰일이지. 몸이 문제가 아니라 얘기니까.
성록 : 속이 문제다? (웃으며) 그래. 난 속상한 놈이야. 아주 맛이 갔어.
양수 : 그런 뜻은 아닌데.
성록, 자리에서 일어난다.

양수 : (일어서려하며) 왜?
성록, 일어서려는 양수를 제자리에 앉히고 병상고에서 음료수들을 꺼낸다.
성록 : (냉장고앞에 쭈그리고 앉아 음료수를 꺼내며) 오기 힘들었지?
양수 : 생각보다 멀더라. (혼잣말처럼) 생각만큼 멀었던건가?
성록 : 흥한 얼굴 보러 산 넘고 물 건너 오셨구만.
양수 : 귀한 얼굴 보러 지하철을 한번, 버

스를 두번이나 갈아타고 왔지.
성록 : (음료수 내밀며) 자식들 음료수 같은 거 사오지 말라니까, 촌스럽게. ...

희곡의 전문 및 가작은 동대신문 홈페이지(www.dgupres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나진 (국어국문 4학년)



시 부문 장원

쉬운 병아리

상자박스가 우리의 삼층 침대가 되었다. 찬 신문지 바닥에서

이렇게 목 놓아 울면 나 좀 봐 주겠어요?
바람이 너무 차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양 팔의 깃을 세우고 똥구멍에 힘을 꽉 주고 말한다.

어때요 발성이 괜찮나요? 어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고양이가 날을 세우는 장면이 오버랩되며 나는 지금 잡아먹히려 간다
어차피 금방 죽어버리는 병아리일 뿐이다 그래

걱정되세요? 똥줄이 탈 정도로 오래 버티게 노력해볼게요.
우리의 종족은 장수만 한다면 무척이나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
병아리 공장의 상품들에게 하자가 있다는 건, 꼬마들은 모르니까 숨기도록

사창가의 언니들도 젓가슴을 꺼내놓고 있지 않잖아 내 똥구멍을 보지는 말아주세요.
꼬장꼬장한 단 돈 천원을 갖고 병아리를 주무르는 꼬마의 손과 사창가를 더듬으러 오는 아저씨
그렇게 큰 손으로 나를 조물조물 구석구석 만지는 건 이젠 정말이지 아무 느낌도 나지 않아

내 삐약거리는 신음소리가 당신들 귓가에 남을지도 몰라요.
비웃음치는 당신 달팽이관에 우리의 목소리를 모두 삼입하겠단
종이상자 벽에 김이 서리며 바닥이 젖어가고 있다



오상미 (문예창작 3)

제 47회 동대학술상 · 제 24회 동대문학상 입상자 명단

| | | | | | |
|-------|---------|----|-----|-----------|--|
| 동대학술상 | 인문과학분야 | 장원 | 한유경 | 국어교육과 4 | '자기 고백의 표현 양상'을 바탕으로 한 국어 교육 내용 연구 |
| | | 가작 | 안효선 | 국어교육과 3 | 다양한 표현형태를 사용한 시의 보조자료로서의 교육적 모색 |
| | 사회과학분야 | 장원 | 김형환 | 정치외교학과 3 | 남북한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입지요인 분석과 협력방안 |
| | | 가작 | 박민준 | 정치외교학과 3 | 남북한 지방자치 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 | 자연과학분야 | 장원 | 이송희 | 환경생태공학과 4 | 식물생장조절제(FGRs : Plant Growth Regulators)에 따른 갈매보리수 나무(Hippophae rhamnoides)의 체세포배 유도 및 발아 |
| | | 가작 | 없음 | 없음 | 없음 |
| 동대문학상 | 시 | 장원 | 오상미 | 문예창작학과 3 | 쉬운병아리 |
| | | 가작 | 권미자 | 문예창작학과 4 | 누에 |
| | 소설 | 장원 | 리유경 | 문예창작학과 4 | 재채기 연습 |
| | | 가작 | 오민아 | 문예창작학과 4 | 길 |
| | 희곡 시나리오 | 장원 | 임나진 | 국어국문학과 4 | 작별 |
| | | 가작 | 전진오 | 문예창작학과 2 | 몹 |

제 24 회 동대문학상 심사평

□ 심사평 - 소설 부문

경험과 재미와 허구를 골고루 갖춘 작품

소설은 이야기다. 재미있는 이야기다. 시작과 끝이, 말하는 방식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적 완성도를 충족시키는 이야기다. 소설은 또한 경험이다.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모방하는 거다. 그래도 역사나 뉴스와 다르다. 지어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경험을 지어내어 재미있게 이야기할 줄 아는 게 소설가의 미덕이다.
'길'은 모로코 사막 여행서사다. 동행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며, 풍물에 대한 성실한 재현이 독자들에게 이방의 공간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단편의 압축된 형상미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 가작으로 뽑는다. '재채기연습'은 일상의 자잘구레한 사건들이, 별 주목을 받지 못할 것만 같은 에피소드들이 전체 서사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서사를 이끌어가는 기량도 훌륭하다. 경험과 허구와 재미의 요소를 골고루 잘 갖추고 있다. 장원으로 뽑으며 좋은 발전을 기대한다.

윤재웅 (국어교육과 교수)

□ 심사평 - 시 부문

응모작 대체로 참신성 갖춰

응모된 작품을 모두 읽고 나자 네 명의 투고자가 눈에 띄었다. 최종적으로 남은 작품은 '덧감', '쉬운 병아리', '흄뻑 젖은 오후에', '25년 1장', '누에', '그림일기', '12월, 나는 시집을 덮고 凍死했다' 등이다. '12월, 나는 시집을 덮고 凍死했다'는 시상이나 화자의 어투 등에서 참신한 점이 있어 눈에 띄는 작품이었다. 하지만 완성도가 부족했다. '누에', '그림일기'는 시의 종결부분이 역지로 짜 맞춘 듯이 보이거나 도식적이어서 오히려 시적 긴장이 무너지는 것이 단점이었다. '25년 1장', '흄뻑 젖은 오후에'는 시 창작에 익숙한 솜씨를 보여주지만 시적 이미지와 언어의 명징성이 떨어지는 등 습관적인 결점이 눈에 띄었다. '덧감'은 단조롭고 평이하지만 명징한 서술, 이미지의 표현 등이 좋고, '쉬운 병아리'는 시적 구상이 역지스럽기는 하지만 안정감 있는 시적 전개를 보여준 점이 장점이다.

김춘식 (국어국문학과 교수)

□ 심사평 - 희곡 · 시나리오 부문

작별, 활력 부족하나 뛰어난 문학성 선보여

'몹'은 컴퓨터 게임에서 괴물을 칭할 때 쓰는 용어다. 희곡 <몹>은 괴물을 잡은 마을이장과 청년과 사냥꾼이 서로의 공과를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급기야는 마을이장이 사냥꾼을 죽이고, 청년은 마을이장을 죽인다는 이야기다. 우화(寓話)답게 상징성과 풍자와 교훈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극의 활력이 있어 좋았다. 하나 인물의 깊이가 문제였다. 다소 사람냄새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희곡 '작별'은 죽음을 앞둔 남자를 옛 여인이 문병 와서 나누는 짧은 만남을 테마로 삼았다. 대사가 수려하고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었지만 대사로만 일관하다 보니 활력이 없는 점이 무척 아쉬웠다. 무대화 되었을 때 관객이 지루해 할 것만 같았다. '작별'을 당선작으로 '몹'을 가작으로 선한다.

이만희 (영상대학원 교수)

동계방학 기간 중 이용시간 조정

기간 : 2009. 12. 22(화) ~ 2010. 2. 27(토)

| 구분 | 층 | 장소 | 요일 구분 | |
|-------|------|--------|-------------|-----|
| | | | 월요일-토요일 | 일요일 |
| 중앙도서관 | 3층 | 불교학자료실 | 09:00-17:00 | 휴관 |
| | 2층 | 대출반납실 | | |
| | | 멀티미디어실 | | |
| | 1층 | 자연과학실 | | |
| | 지하층 | 사회과학실 | | |
| | 지하2층 | 인문과학실 | | |
| | 4층 | 증축 열람실 | | |
| | 지하3층 | 별관 열람실 | 06:00-24:00 | |
| 법학도서관 | 3층 | 단행본실 | 09:00-17:00 | 휴관 |
| | | 멀티미디어실 | | |
| | 2층 | 참고자료실 | | |
| | 1층 | 열람실 | 24시간 개방 | |

2009. 12.

중앙도서관장

‘자기 고백의 표현 양상’을 바탕으로 한 국어 교육 내용 연구

인문과학 부문 장원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언어 사용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국어 교육은 ‘언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 언어의 특성, 소통방식의 변화, 매체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비판적 이해까지도 교육의 내용으로서 다루어야 한다.

논문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매체 중 문자 매체와 디지털 매체에서 드러나는 읽기와 쓰기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두 매체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자기 고백의 표현 양상’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매체별 언어 활동의 특성과 자기 고백의 표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된 텍스트는 인터넷 매체에

서 생겨난 ‘웹툰(‘문스패밀리’)과 문자언어로 이루어진 ‘자서전(안테르센 자서전)’이다.

문자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통해 글을 읽을 때 학습자의 의미 소구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

문자 매체는 ‘기록’을 통해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지만 공간적 상황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는 작가의 전달 내용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반면 문자, 영상, 음성이 복합되어 있는 디지털 매체는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모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와 독자 간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서전과 웹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자기 고백의 이야기’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내면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해나간다.

자서전은 ‘이름있는 작가’의 ‘일대기’와 그 가운데 있는 사적인 고백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독자가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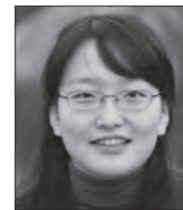
웹툰의 경우에는 작가가 일반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개인의 거대한 일대기보다는 누구나 겪었을 법한 ‘일상의 소소한 체험과 그것을 통한 깨달음’을 댓글 등을 통해 독자와 ‘함께’ 나눈다.

논문은 이러한 두 매체에서 드러나는 의미 전달의 차이와 그 차이를 매개하는 ‘자기 고백의 양상’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바탕으로 국어 교육의 내용을 구안하였다.

그러나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웹툰’에 대한 구체적인 속성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어 ‘자기 고백의 표현 양상’을 매개로 한 교육 내용을 구안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랐다. 그리고 ‘자기 고백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본 논문의 원본 및 가작은 동대신문 홈페이지(www.dgupres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유경 (국어교육 4)

남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입지요인 분석과 협력 방안

사회과학 부문 장원

남한은 예로부터 자원이 풍부하여 광물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 광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남한 광물 수입액이 증가함으로써 인하여 산업성장애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자원이 풍부한 북한이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 과연 광물자원 개발 입지 요인으로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입지요인 이론의 하나인 브라운 - 김슨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이론은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요인과 비용으로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 요인을 가지고 산업 개발에 적합한 입지지를 가려내는 이론이다.

북한은 객관적 요인의 노동임금과 전력요금, 운송비가 광물 자원 개발 입지지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관적 요인의 교통 기간 시설, 북한의 태도 및 제도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광물자원 투자 입지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 북한의 광물 자원 한계점은 열악한 기간시설, 북한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태도와 당국의 간섭 및 정책변화, 북한 법체계의 문제, 남북관계의 정치적 불안정성, 투자형태의 문제가 있다.

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첫

번째, 기간시설 여건에 따른 협력방식, 두 번째, 남북 공동운영 방안, 세 번째, 재원 조달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해결책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 광물 자원 산업을 했을 경우에 북한에서는 수출증대로 인한 경제 성장률의 증가로 인해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남한은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금속분야에서는 광물 수입의 해외 의존도 약화, 국제 원료 가격 상승분의 흡수, 수송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금속 분야에서는 저임금 고품질의 생산물을 취득할 수 있으며 금속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송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 지원 분야에서는 대북경제 지원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광물 자원 개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위성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사업은 남한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점과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아간다면 남북 협력관계에 있어서 보다 좋은 예로 남을 것이며 아울러 남북 공동 경제성장과 우호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원본 및 가작은 동대신문 홈페이지(www.dgupres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형한 (정치외교 3)

식물생장조절제에 따른 갈매보리수 나무의 체세포배 유도 및 발아

자연과학 부문 장원

갈매보리수나무(H. rhamnoides L.)는 보리수나무과(Elaeagnaceae)에 속하는 낙엽활엽관목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6종 12아종이 있다.

유럽과 중국, 몽골, 러시아 등지에 분포하며, 영하 40℃에서도 생육이 가능할 정도로 내한성이 강하며 내염성과 내건성이 강한 식물이다.

질소고능력을 가지고 있어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막화 방지 사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갈매보리수나무의 열매와 잎에는 비타민이 풍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나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영양실조 예방과 면역력증진제로 갈매보리수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피부병치료제와 소화촉진제로 사용되었다.

또한 주름개선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산, 중국산 갈매보리수나무의 기내배양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몽골산 갈매보리

수나무의 기내배양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갈매보리수나무의 고유종을 지니고 있는 몽골은 사막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몽골 자생종 갈매보리수나무의 다양성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몽골 자생종에 대한 유전자원의 보존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식물생장조절제(PGRs; Plant Growth Regulators)에 따른 갈매보리수나무의 기내배양(In vitro)조건을 구명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8년 9월 몽골지리생태연구소에서 구입한 갈매보리수나무를 공식재료로 이용하였으며, 갈매보리수나무 기내 종자발아에 1.0 mg/L GA3의 첨가·무 첨가와 Filterpaper의 유·무 처리가 갈매보리수나무의 기내 종자발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White 기 본배지에 3% sucrose, 0.3% gelrite에 1.0 mg/L GA3 첨가·무 첨가, Filterpaper 처리와 무 처리군을 두

었다.

기내 종자 발아는 Filterpaper를 처리한 GA3 무 첨가 배지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보였으며(47.5%), 오염율은 1.0 mg/L GA3 첨가와 Filterpaper 무 처리에서 가장 낮은 오염율을 보였다(21.5%). 따라서 갈매보리수나무의 기내 종자발아에 GA3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물생장조절제에 따른 갈매보리수나무의 체세포배 유도는 기내에서 발아된 자엽과 줄기를 시료로 이용하였으며 SH 기본배지에 3% sucrose, 0.3% gelrite를 첨가하였고 식물생장조절제는 BA(1.0, 2.0 mg/L) + IAA(0.5, 1.0 mg/L), Kin(1.0, 2.0 mg/L) + IAA(0.5, 1.0 mg/L)를 첨가하였다.

2.0 mg/L BA + 1.0 mg/L IAA에서 가장 높은 유도율을 확인하였으며(77.8%), 체세포배의 발아는 2.0 mg/L Kin + 1.0 mg/L IAA와 1.0 mg/L BA + 0.5 mg/L IAA의 조건에서 약 8.8%의 비슷한 발아율을 보였다.

배지와 GA3의 농도에 따른 체세포배 발아를 관찰하기 위해 SH 배지와 WPM 배지에 3% sucrose, 1.0% bacto-agar로 경화시켰으며

GA3 (1.0, 3.0 mg/L)을 첨가하였다.

배지의 종류와 GA3 농도에 따른 체세포배 발아는 약 6%의 발아율을 보였으며 배지와 GA3의 농도는 체세포배 발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식물체 신장 단계에서는 3% sucrose, 0.3% AC와 3.0 mg/L GA3를 첨가한 배양조건에서 배양 조건이 적합하지 않아 chlorotic 현상과 줄기괴저 현상(STN, Shoot Tip Necrosis)이 발생하여 활력을 잃고 고사하였다.

따라서 몽골산 갈매보리수나무의 유전자원보전 및 활용을 위해 갈매보리수나무의 조직배양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의 원본 및 가작은 동대신문 홈페이지(www.dgupres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승희 (산림자원 4)

제 47 회 동대학술상 심사평

□ 심사평 - 인문과학부

주제의 탁월성 및 이론적 탄탄함까지 갖춰

‘자기고백의 표현양상’을 바탕으로 한 국어교육 연구는 학부학생 논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다.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의 독립영역인 매체언어를 제재로 삼은 것도 탁월하며, 의사소통에 대한 표현적 양상에 주력하는 국어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만한 자기고백의 표현양상을 내용으로 하였다는 점에서도 주제의 탁월성이 드러난다.

또한 웹툰과 자서전의 비교연구에서 이론적 탄탄함뿐만 아니라 실제 교수-학습을 위한 실천적 질적 연구까지도 잘 되어 있어 석사학위 논문 이상의 우수성이 엿보인다.

비록 맞춤법, 논문형식에 조금 서툴고, 그림 양식 기법을 웹툰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보이지만, 다른 논문에 비하면 내용면, 논술 방법, 논거 제시의 방향성, 주제의 독창성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다양한 표현형태를 사용한 시의 보조 자료로서의 교육적 모색”은 주제가 참신하며 창의적이다. 논문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참신한 주제, 창의적인 발상, 국어교육 논문으로서의 자료 제시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이 뚜렷하게 두드러지므로 가작으로 추천한다.

서은숙 (윤리문화학과 교수)
김혜숙 (국어교육학과 교수)

□ 심사평 - 사회과학 부문

짜임새 있는 구성, 명확한 문제의식도 갖춰

학술상 사회과학 부문에 응모한 논문들은 총 4편으로 전부 남북관계 관련된 것들이다. 대체로 글쓰기 형식에 충실하며, 내용 면에서도 문제의식이 명확한 논문들이어서 반갑다.

편수는 적지만, 좋은 논문들이어서 당선작을 고르기에 약간의 머뭇거림이 있었다.

장원에 뽑힌 “남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입지요인 분석과 향후 협력 방안-브라운 김슨 모델을 활용하여”는 북한 광물개발 남북 공동 개발을 위한 고민스런 모색이 담겨 있다.

분석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남북한 모두 원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안 모색이란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이다.

가작으로 뽑은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평양과 경주의 문화 교류 가능성을 타진한 참신한 연구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논문이 제출되어, 동대학술상의 권위를 보다 높였으면 한다. 목향이 가득한 내년을 기대한다.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 심사평 - 자연과학 부문

일부만 보완하면 학술지에도 등재 가능

‘식물생장조절제(FGRs ; Plant Growth Regulators)에 따른 갈매보리수 나무(Hippophae rhamnoides)의 체세포 배 유도 및 발아’는 학부과정 논문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연구내용이다. 또 본 연구 논문에서 이미 많은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질적으로도 우수한 논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연구소재인 갈매보리수나무는 사막보리수나무라고도 통용되는 나무로, 중국,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스님들의 수행 생활 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종이다.

본 수종은 비타민 함량이 매우 높고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성오일의 우수성이 알려져 널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학교 생명과학연구원에서도 기능성 비누 또는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품적 가치가 인정되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춘천과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식재되고 있으나, 품종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여 재배에 어려움이 직면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생명공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유전자원을 복제할 경우 신품종을 개발하여 자원을 공급하는데 좋은 방안이 제시되리라 사료된다.

연구결과를 보완할 경우 국내 학진등재 논문 또는 SCIE의 학술지에도 게재가 가능한 연구라고 판단되어 당선작에 선정한다.

강호덕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보리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발원(發願)

우리는 새로운 1년이 시작될 때마다 신년 설계를 하고 한다. 하지만 신년 초에 세워놓았던 각종 계획들을 꾸준히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희망을 꿈꾸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꿈과 희망은 실현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주는 매력에만 빠져 산다면 그는 몽상가에 불과할 뿐이다.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의 의미

희망을 꿈꾸고 그 희망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불교에서는 발원이라고 표현한다. 발원은 글자 그대로 '원을 발하는 것'이며, 여기서의 원은 서원(誓願)을 뜻한다. 발원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원만 굽은 꼭 이루어내고 말겠다는 간절한 다짐, 맹세의 행위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모든 '발원문'의 종결형은 '해주시시오'가 아니라 '하겠습니까'가 되어야 옳은 것이다.

발원에는 총원(總願)과 별원(別願)이 있다. 총원은 모든 불보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을 말하며, 별원은 특정 불보살이 세운 개개의 원을 말한다. 또한 불자 모두가 간직해야 할 원을 총원이라 한다면 불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원은 별원이라 할 수 있다.

불교 법회는 참석대중이 '사홍서원'을 합송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때 합송하는 사홍서원이 곧 총원이다. 개인적인 별원은 마음 속에 담아둔 채 대중 전체가 한 마음으로 총원을 합송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에서 발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총원과 별원이 반드시 불자들에게 국한된 것일 필요는 없다. 인류사회가, 우리 민족이,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공동의 발원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총원일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는 독립이라는 총원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총원이 있었다. 독립을 염원하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갈망했던 총원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친일파를, 반민주화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낼 수 있었던 힘 역시 우리

들의 총원에서 나온 것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총원이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선진국가', '복지국가' 등의 지향점을 내세우며 과거와 같은 총원의 힘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별원(別願)보다는 총원(總願)을

오히려 날이 갈수록 이념, 계층, 빈부 등으로 인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가는 상황이다.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합창하는 남북의 동포가 진정으로 통일을 발원하고 있는 것인지, 통일은 과연 이 시대의 총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인(庚寅)년 새 해가 밝았다.

날짜가 더 지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문을 작성해보자. 그리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 하루하루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우리 동국인들만이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사는 이 땅은 머지않은 시기에 불국토가 되어 있을 것이다.

사설

경인년, 동국 발전의 한 해로

경인년 새 아침이 밝았다. 새해에 거는 동국인들의 기대가 어느 해보다 커 보인다. 새 해를 맞이해 동국인 모두 편안하고 행복해지기를 동대신문은 간절히 기원한다.

새해를 맞아 동대신문은 우리대학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도약을 위한 구성원 내부의 소통과 화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간의 합의와 결속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비전이 있어도 분란과 불화가 계속된다면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지난해 출범했던 미래기획위원회가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담겨있으리라고 기대해 마지 않는다. 거기에 담긴 마스터 플랜이 실제로 구동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간의 컨센서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두번째로 올해에는 반드시 종단과 재단이 합심하여 인재불사(人材佛事)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우리대학은 불교계의 삼보정재로 설립된 종합대학이다.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대학의 인재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도 지난해 재단 이사장 선출과 총무원장 선출이 원만히 마무리됐다. 화합종단, 원융 재단의 큰 틀이 갖추어진 만큼 이제는 합심하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주춧돌을 놓아주기 바란다.

새해 벽두(壁頭)에 동대신문은 어느 해보다도 새로운 마음을 다짐한다. 올해는 동대신문이 창간(創刊)된 지 60년이 되는 특별한 해다. 이에 동대신문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한다. 대학 구성원들이 동국 발전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마당을 만드는 것, 진정한 감시자로서 언론 본연의 구실을 다하는 것, 이것이 동대신문의 역할이다. 단순한 보도를 넘어 실제적 진실의 보도와 정의에 충만한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길 것임을 다짐한다. 새해에는 구성원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슴 구석 구석 전해지길 빌어마지 않는다.



메아리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방기곡경(旁岐曲逕)

▲방기곡경(旁岐曲逕)이란 말이 있다. 이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이 아닌 '갓길과 굽은 길'을 이르는 말로 바른길을 쫓아서 정당(正當)하고 순탄(順坦)하게 일을 하지 않고 그릇 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행동한다는 것을 비유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조선 중기 유학자 율곡 이이는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이상을 다룬 저서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제왕이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채우고 도학을 싫어하거나 직언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구태를 묵수하며 고식적(姑息的)으로 지내거나 외척(外戚)과 측근(側近)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망령되게 시도해 복을 구하려 한다면 소인배(小人輩)들이 그 틈을 이용해 갖가지 '방기곡경'의 행태를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교수신문은 지난해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방기곡경(旁岐曲逕)'을 뽑았다. 교수신문은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추진, 미디어법 처리 등

굵직한 정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갓길, 굽은 길로 돌아갔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즉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비판하고자 '방기곡경'이란 말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국민들의 여론을 배제한 채 많은 정책들을 추진했다. 새해 벽두에 터져나온 용산 참사나, 일방적인 미디어법 개정문제, 환경과과 논란을 불러온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세종시 원안 변경 추진 등의 굵직한 사건들마다 국민의 뜻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여론을 결집시키기는커녕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갓길로 빠져버렸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출범 당시부터 고소영 내각이나 강부자 정부나 하며 서민들을 도외시켰다는 비판이 올해도 계속되어 복지예산은 삭감되고, 성공가능성이 불

분명한 엄청난 규모의 4대강 사업이 국정과제의 핵심이 되는 상황을 국민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의회 의석 수에 의지한 채 일방통행으로 치닫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어느 모로 보나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다. 정부는 이제 밝아온 경인년(庚寅年)을 맞아 지난 해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그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반대를 무릅쓰야 할 때도 있고, 원칙을 지켜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원칙은 상식과 국민 다수의 뜻에 기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합의와 토론이 전제되는 것이 온당하다.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일방통행하려 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누르고 한다면 이는 다수의 독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정부와 권력자들이 방기곡경(旁岐曲逕)의 뜻을 곰곰이 새겨봐야 할 이유다.

만평



謹賀新年

백선아 기자 amy@dgu.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중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2010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야간) 00명

■ 입학전형일정

Table with columns: 구분, 일정, 장소. Includes details for application, exam, and admission.

■ 학과 및 세부전공

Table with columns: 학과, 세부전공, 모집인원, 수업연한, 세부전공, 장소. Lists law-related majors and their details.

■ 전형방법 및 전형료

Table with columns: 구분, 내용, 전형료. Details exam methods and fees.

■ 합격자 등록

Table with columns: 구분, 기간, 전형료. Details registration periods and fees.

* 예치금과 본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며,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특전

- 본 대학원은 5학기제로 운영되나 성적우수자는 4학기 조기수료(졸업) 가능함.
- 법조인장학, 공무원장학, 교직원장학, 국가고시장학, 총장장학 등 다수 장학 혜택 있음.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음.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된 일자까지 예정된 졸업(학위취득)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260-3742 / 팩스 : 02)2260-3941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 http://gslaw.dongguk.edu

2010년을 달리는 동국인! 3인의 삼인삼색 신년 포부 인터뷰

“경인년엔 한화의 해결사 될 것”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감독 한대화(체교83졸) 동문

‘82년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우승(優勝), 98년도 대통령기대학야구대회 우승, 90년대 해태의 전성기(全盛期)’

우승의 순간, 승리의 주역(主役)은 늘 우리대학 한대화(체교 83졸) 동문이었다. 이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의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강인한 해결사의 이미지로 각인(刻印)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그의 고향인 대전구장 근처에서 만난 한 동문의 얼굴에는 잔주름과 더불어 등성등성 흰머리를 엿볼 수 있었다.

한동문은 삼성 수석코치에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놓인 한화 감독으로 부임(赴任)하게 됐다. 지난 한해 최하위로 프로야구 시즌을 마감한 한화를 맡아서인지 많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다.

가뜩이나 전력이 약한 가운데 한화의 두 핵이었던 거포(巨砲) 이범호, 김태균이 일본으로 가게 된 것이 한 동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해 조심스레 묻자, “바닥부터 출발하는 기분”이라며 “큰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가라앉은 팀의 분위기를 일으켜 세우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고 지금의 상황을 정리했다.

한대화 동문이 우리대학과 인연을 맺은 것은 대전고 재학시절 스카웃 제의를 받고

나서 부터였다. 학창시절에 대한 추억을 묻자 한 동문은 한참을 생각하다 “사실 저는 대학시절 전부를 연습에만 매진(賣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밥 먹고 연습한 기억밖에 나질 않네요”라며 웃었다.

무명이었던 연습벌레 한대화는 드디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다.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속적(宿敵)인 일본과의 결승전. 부동의 3루수라고 불리우던 김승희 선수가 빠진 구멍을 당시 우리대학 4학년 재학 중이던 한대화가 대신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별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렇게 패전의 기운이 돌고 있는 가운데 한대화의 역전 3점 홈런은 한국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를 계기로 한 동문은 아직까지도 명승부로 회자되는 한일전 승리의 주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결사’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 재밌는 여담이 있다. 우승후 돌아오는 길에 총장님께서 차까지 보내주시면서 긴급호출을 한 탓에 그만 과속에 걸린 한대화 동문은 “방금 경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급하게 호출하시는 바람에 과속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했고 한대화를 알아본 경찰은 오히려 사고를 하며 학교까지 호위를 해주었다고 한다.

그 뒤로 한 동문은 98년도에 프로야구 선

수로서는 최초로 우리대학 감독을 맡게 됐다.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없었던 그는 “처음 1년간은 벤치에서 선수들과 무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 약 5년간 감감무소식이던 우승소식이 98년도 내가 감독을 맡은 해에 승리의 기쁨을 일궈냈었죠”라며 당시를 회상(回想)했다.

또한 한 동문이 우리대학 사령탑(司令塔)이었을 때 야구부 선수들이 지금 프로야구에서 활발하게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삼성의 박한이나 LG의 서승화 선수들이 그 예다. 이러한 제자를 배출(輩出)해낸 한 감독은 “당시 오로지 야구에만 매진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대학 출신의 많은 선수들이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습니다”며 자랑스러워 했다.

한편 인터뷰 내내 한 동문은 동국대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그의 아들도 현재 우리대학 체육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그런지 후배들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요즘 대학 풍토(風土)가 예전에 비해 열정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한 동문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요즘 대학가를 살펴보면 자기 할 일 다 하고 야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래선 프로야구선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후배들이 프로에 진출하고 싶다면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라며 후배들에게 한 우물을 팔 것을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한 동문은 “코치는 많이 해봤지만 감독을 맡게 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한화를 맡게 되었으니 초보 감독으로서의 험난한 여정(旅程)이 되겠죠”라며 이번 시즌이 한화의 도전인 동시에 감독으로서 자신의 도전임을 밝혔다.

‘내년 프로야구 최하위는 한화다’라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적잖은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한 동문에게 겨울은 유독 매섭게 다가왔다.

해결사라는 그의 별명에 걸맞게 이번 위기의 순간에서도 기지(機智)를 발휘해 독수리가 다시 그라운드에서 날개를 펼칠 그날을 기원(祈禱)해 본다.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 88년 미스터 올스타로 선정되며 타자로 활약한 한대화 동문은 2004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수석코치를 거쳐 한화 이글스의 총 사령탑을 맡게됐다. 이제 한대화 동문은 감독의 길을 걷는다.

한대화 동문 약력

- ▲ 선수 · 코칭스태프 경력
1979년 동국대 입학 / 1982년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 1983년 OB 베어스 / 1986년 해태 타이거즈 / 1994년 LG 트윈스 / 1997년 쌍방울 레이더스 은퇴 / 1998년 동국대 감독 / 2004년 삼성 라이온즈 수석코치 / 2009 한화 이글스 감독
- ▲ 수상 경력
1982년 대통령배 타격상 / 1988년 프로야구 올스타전 MVP / 1991년 골든글러브 7회 / 2000년 프로야구 올해의 상 특별상

생생한 현장이라면 어디든 그녀가 있다

2009 KBS 공채기자 김영은 동문(신방08졸)



“아주 넓은 사실이라는 바다에서, 헤엄치며 수난고초를 겪는 사람이 자다”

2009년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 어느 곳이든 뛰어나니며 별의별 경험과 고통을 맛봤다는 김영은 동문(신방08졸)은 언론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자(記者)’의 정의가 그 누구보다도 마음과 와 닿을 듯하다. 그녀는 2009년 KBS에 입사한 후 기자로서 현장(現場)을 중흥무진하며 그 누구보다 바쁜 2009년을 보냈다. 14년 만에 달미를 잡힌 의문의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현장, 의정부 유조차 전복 현장 그리고 추석 연휴 귀경길 소통 상황 파악이 가능한 서울 요금소 등 생생한 현장 속엔 그녀가 있었다.

약 6개월간의 고된 수습기간을 거치고 사회부 기자로 거듭난 김영은 동문은 2009년 한해를 기자 정신 즉 강인함, 근성을 배울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는 말로 인터뷰의 서두를 열었다. 그녀는 수습기간 동안 하루에 한 두시간만 자며 취재(取材)를 할 정도로 혹독한 신고식을 겪었다고 한다. “도망가서 행방을 알 수 없는 범죄자를 찾아서 취재를 해오라는 선배 기자의 지시를 받았을 때 막막했다. 취재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고생도 많이 했다”며 수습기간 동안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熾烈)한 기자 생활에도 매력(魅力)이 있다며 웃으며 말하는 김영은 동문.

마지막으로 언론고시라고 할 만큼 치열한 언론사 입사 시험을 통과한 언론고시라 할만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기자가 된 그녀는 2010년 새내기 기자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자신감을 갖아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한 언론사 입사 시험에서부터 지레 두려움을 갖는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미 ‘현장의 맛’을 알아버린 그녀에게 두려운 것은 없다. 어떠한 실패와 패배(敗北)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찾아 현장을 누빌 김영은 동문, 그녀의 2010년을 기대해본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다양한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KBS 아나운서 이정민(광고홍보04졸) 동문



KBS 간판 프로그램 VJ특공대에서는 톡톡 튀는 멘트로 현장감을 시청자에게 전해주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진지한 태도로 정보를 전달(傳達)하며, 뉴스광장에서는 진중(眞中)한 어조로 신뢰감을 주는 그녀는 누구일까?

그녀는 바로 KBS 대표 아나운서 이정민 동문이다. 2009년이 그녀의 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정민 동문은 연예프로그램에서 시사, 교양 프로그램, 뉴스까지 여러 방면에서 활약(活躍)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섭렵하고 있는 그녀지만 “아나운서란 직업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열심히 물장구쳐야 하는 백조 같다”고 말하며 현직 아나운서도 항상 노력하고 발전된 모습을 시청자에게 보여야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그녀는 6시 새벽 뉴스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고수(固守)하고 있으며, 항상 새벽 3시에 미리 방송국에 도착해 대본연습을 할 정도로 노력하는 ‘노력파’다. 지금의 ‘이정민 아나운서’로 거듭나기까지 그녀에게는 대학시절의 경험(經驗)들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녀는 “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던 친구와 함께 대운동장에서 발성연습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현재 아나운서 경쟁률은 1:1000에 이를 정도로 아나운서란 직업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다. 제 2의 이정민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그녀는 “소위 말하는 스펀지 좋은 것도 얼굴이 뛰어나게 예쁜 것도 아닌 제가 합격(合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경험들을 소중히 한 결과”고 말했다. 그녀는 “KBS 아나운서 입사시험에서 떨어진 후 입사한 SBS 자회사 골프 채널에서 익힌 실전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종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녀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야한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서 계획적인 도전을 하라”고 강조했다. 2009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팔색조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친근(親近)하게 다가온 이정민 아나운서, 2010년에도 브라운관 속에서의 활약할 그녀의 모습을 주목해보자.

이지연 기자
ljy88918@dongguk.edu